

[월간] 2021年 7月 1日(목요일)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2年 第 553 號

권해옥 회장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 현장 방문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광택 경상북도 도의원, 권남희 안동시의원, 권해옥 회장, 이경섭 현장 소장, 권오의 사무국장, 권현 편집위원장, 권기성 대종회 이사(원쪽부터)

권해옥 대종회 회장은 6월 8일 오전 11

시 20분 권영익, 권숙동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권광택 경상북도 도의원과 권남희 안동시 시의원,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용주 전 부정공파종회 회장, 권기성 대종회 이사, 권오의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행완 편집국장 등과 함께 시공 중인 시조 태사공 진입로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권해옥 회장 등 일행은 진입로 입구에서 이경섭 현장 소장으로부터 공사 일정과 공사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권해옥 회장은 브리핑을 듣고 무더운 여름에 안전하고 없이 무사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입로에서부터 시조 묘소까지

점검에 들어갔다.

권해옥 회장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검토하여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어느 구역은 담을 높이 쌓고 어느 구역은 담을 쌓지도 않는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봐서 조화롭지 못하다. 전체 구간에 대해 2단이나 3단으로 쌓으면 미관상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겠다. 둘째는 진입로 입구 축대를 보강하면서 입구 폭도 넓혔으면 한다.

현재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도 자연스럽지 않는 구조다. 막혀 있다.셋째는 안동권씨 시조 묘소 표지석 뒷부분을 자연석 돌을 쌓아 보완해야 한다. 이는 표지석

을 둘보이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현재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넷째는 움푹 파인 곳이나 나무뿌리가 드러나는 일부 구간에 대해 마사토를 깬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마사토가 쓰러져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길 바깥쪽에도 축대를 쌓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 계획에 없다고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섭 현장 소장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안동시에서 경상북도에 문화재 주변 형상 변경을 승인받아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정리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의한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만약 기본설계를 변경하려면 안동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 지적한 사항을 안동시에 보고하여 추후 진행되는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안동시와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광택 도의원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개인이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남희 의원은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일행은 식당 북향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편집국장 권행완

6月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권구영 회장(‘21.06.21자) (주)천일원양식회 회장

부회장

권영호 상임위원(부산) 1,000,000
권영하 상임위원(서울영등포) 1,000,000
권오돈 상임위원(서울관악) 1,000,000
권태명 상임위원(부산) 1,000,000
권무탁(대영고등학교 이사장) 1,000,000

이사

권태훈(경기시흥) 300,000
권대균(안동) 300,000
권오준(영천) 300,000
권택상(서울영등포) 300,000

총무위원

권순재(서울송파) 200,000
권중원(부산) 200,000
권윤성(안동) 200,000
권기순(대구) 200,000
권혁두(김해) 200,000
권영식(밀양) 200,000

총 : 7,4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권율 도원수 표준 영정 제작 자문회의 개최

관복 입은 공신상(功臣像)으로 영정 제작



권해옥 회장(맞은편 오른쪽), 권영범 충장공종중 회장(맞은편 왼쪽), 이승재 고양시 과장(맨 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권율 도원수 표준 영정 제작에 권오창 화백이 선정되어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동강궁중회

화연구소에서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신병주 교수는 권율 장군은 문과 출신이어서 조선시대 문관 품계와 후손들의 골격 등을 참고해서 공신상의 전형으로 제작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율 장군의 용모를 표현한 내용이 사료 등에 거의 없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물론 권율장군이 문과 출신이지만 이치대첩, 독산성 전투, 행주대첩 등의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군이다. 때문에 갑옷을 입은 권율장군의 영정이 자연스럽다.

권해옥 회장은 권율장군은 임진왜란 시 풍전遁화와 같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권율이라고 말하듯이 권율장군은 행주대첩 때문에 선무일등공신이 됐다. 따라서 영정도 이에 걸맞게 제작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안동권씨 모든 족친들은 등상 모습처럼 갑옷을 입은 권율 장군의 영정을 바라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고양시에서 발주한 표준영정제작 과업지시서에도 조선중기 무인의 위엄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은숙 교수는 안동권씨 집안 종친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조선시대 장군 복식을 한 장군상으로서의 표준 영정은 없다.

이순신 장군 영정도 전형적인 문관 공신상이다. 문무관 모두 관복을 입은 영정을 제작했다. 관복이 훨씬 영예스러운 것이다. 관복 공신상을 제작해야 표준영정 심의위원회 기준에도 부합하여 채택될 수 있다.

권영범 충장공종중 회장은 국가제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표준 영정 기준에 맞게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민주 교수는 당시에 제작한 영정 원본이 상당히 드물다. 조경, 권협 등의 원본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권해옥 회장은 자문위원들이 관복을 입은 공신상으로 영정을 제작해야 한다고 하니 100만 족친과 종종 및 고양시 의견을 존중하여 표준 영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오창 화백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문관의 공신상으로 영정을 제작하도록 하겠다. 권율 장군은 전 국민의 역사적인 인물이다. 후학이나 후손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게 영정을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할 '안동권씨 종보' 기증자를 찾습니다

안동권씨대종회에서는 안동권씨종보가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매월 안동권씨종보 2부씩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종보를 검토해본 결과 1993년 1월호 이전 종보 등이 미보관 상태로 파악되어 고 권오선 고문이 소장하고 있던 종보를 지난 3월 10일 인수하여 5월 11일 창간호(1974.12)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총 495건을 납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납본과정에서 누락 된 종보가 아래와 같이 발견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할 해당 종보의 소장자를 찾고 있으니 소장하고 계시는 족친께서는 대종회로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수	부수	면수	발행일자	비고
165	1	4	1989.3.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우 02585

안동권씨 대종회